

육계자조금



자조금소식 대한양계협회, 계열화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육계소식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 대구 EXCO에서 개최

외고 지금은 3저(低) 1고(高)의 닭고기 전성시대!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2011 **8** volume 22



축산계열화법, 농가와 계열업체 상생 이끈다

대한양계협회, 계열화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가칭)축산계열화법’ 제정이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 서로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던 농가와 계열업체를 ‘상생’의 길로 이끌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7월 20일 대전 유성 스파피아 호텔에서 농림수산물부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과 양계농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축산계열화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농식품부의 정익성 사무관을 비롯해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박사, 전국의 양계농가 등이 참석해 그 동안의 계열화사업의 문제점과 축산계열화법 제정 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정익성 사무관은 ‘축산계열화법에 대한 제정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계열화사업에서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상호 불신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계열화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축산계열화법 제정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상생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사무관은 “축산계열화법에는 계열화사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표준계약서 및 사육경비 지급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고 구체적인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수렴 중에 있지만 농가와 계열사간의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쟁위원회와 농가협의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축산계열화의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박사는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국내 축산업계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비 폭등으로 폐업을 하는 농가들이 많은 실정”이라며 “육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합리적인 축산계열화사업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부회장은 축산계열화법과 관련한 농가의 입장을 대표하여 그동안 계열업체의 일방적 횡포와 농가들이 받아온 부당한 대우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농가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계열업체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계열화법에는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분쟁소지가 있는 문구는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노경상 축산경제원장을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이 열려 축산계열화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가대표로 지정토론에 나선 김의겸 산내들농축 대표는 “의견수렴 중에 있는 축산계열화법의 내용을 보면 계약사



전익성 사무관(농식품부)

“계열화법 제정이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상생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계열화법에는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이재홍 부회장(대한양계협회)

육농가협의회, 조정분쟁위원회는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 조정위원회의 경우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농가협의회에서 먼저 조정을 거쳐 곧바로 중앙분쟁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현재 사육경비 지급기일을 출하 후 20일 이내로 지정하고자 하지만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하 후 2~3일내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농협중앙회 유중진 축산지원단장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 올 수 있는 용어들의 재정립을 강조하며 “위탁농가, 수탁농가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용어를 계약사육농가로 통일해야 하고 계약위탁사육수수료 대신 농가의 정당한 노동력을 의미하는 ‘사육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안상돈 박사는 “법률과 표준계약서를 명확하게 구분시킬 필요가 있고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분쟁위원회에 지방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같은 일을 두세 번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조정위원회로 통일시키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농가들의 질의응답이 이어

졌다. 음성에서 육계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형 씨는 “오늘 세미나의 주된 목적이 농가의 의견수렴인데 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인 사육비 인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최근 몇 년간 사료비 폭등에 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있는 반면 농가들이 계열업체에 받고 있는 사육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사육비 인상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계열화법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홍성지역의 이종은 씨는 “계열업체의 눈부신 성장은 결코 그들만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장의 이면에는 농가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농가들도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살을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온 농가들의 어려움에 안타깝다”며 “이제는 농가들이 자신들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열화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 계열회사들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농가에게 더 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양계협회는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을 위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8월 22일까지 양계사진공모전 개최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개인별 5점이하 출품가능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양계산업의 이미지를 심어줘 국산 닭고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계사진공모전이 열린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국내 양계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양계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양계사진공모전은 친근감이 느껴지는 닭과 닭고기 요리 사진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3저1고'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닭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주제는 닭과 관련된 생활 속의 다양하고 자연스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담긴 사진, 양계농장의 아름다운 모습과 닭이 담겨진 사진,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닭고기 요리 및 시식 모습 등으로 나뉘고 이밖에도 닭과 관련된 모든 사진은 공모전에 출품이 가능하다.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지만 국내외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은 제출할 수 없다. 심사기준은 총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아이디어의 독창성 및 창의성(3점), 주제 적합성(3점), 기술 및 구성의 완성도(2점), 대중 친화성(2점)으로 평가된다.

양계사진공모전에 참가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ichicken.or.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디지털 사진 파일이 수록된 CD와 출품신청서를 기재하여 인화된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작품규격은 흑백 또는 칼라 8×10인치 인화물로 회사의 로고 및 상표 등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고 포토샵을 활용한 과도한 합성과 색상변화가 이루어진 사진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출품작은 개인별 5점 이하로 제한된다.

응모기간은 오는 8월 8일(월)부터 22일(월)까지 2주간이며 출품작들에 대한 심사는 8월 24일에 이루어지고 수상작은 8월말에 발표된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에 한하며 온라인접수는 제외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ichicken.or.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디지털 사진 파일이 수록된 CD와 출품신청서를 기재하여 인화된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된다. 우편접수를 원하는 신청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 축산회관 5층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기획관리팀 양계사진공모전 담당자 앞(02-585-9974)으로 보내면 된다.

이번 양계사진공모전의 대상(1점)에게는 상장 및 상금 150만원이 주어지고 우수상 수상자(2명)에게는 각각 상장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장려상(5점)에게는 각각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입선(20점)에게는 상금 각 1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들 수상작들은 오는 9월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축산박람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시되며 향후 육계자조금사업의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될 예정이다. 🍗



전문육계CEO과정 교육 개최

1. 사업개요

• 목적

- 농장경영의 역량과 기업가적 자질 함양을 위한 전문적인 경영인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도자 배출
- 농장의 합리적인 경영방식을 습득하고, 생산단계를 비롯해 유통과 마케팅 단계까지의 총체적인 학습을 통해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자질함양을 도모

• 사업주관 : 대한양계협회

• 사업추진일정 및 방법

구 분	1차(경기·충북일원)	2차(전북·전남일원)
교육기간	2011. 8. 31(수) ~ 9. 2(금)	2011. 9. 5(월) ~ 9. 7(수)
교육장소	양평한화리조트(경기 양평)	대명리조트변산(전북 부안)
교육인원	40명	40명
공고·접수	2011년 8월 1일 ~ 8월 16일(16일간, 선착순 마감)	
공고방법	대한양계협회 홈페이지 및 지회·지부 업무연락	
교육방법	2박3일 집체교육(합숙)	
교육대상	전국 육계농가(우선순은 자조금납부실적, 본회회원여부)	

- 전국 도지회 및 지부를 통한 교육내용 홍보 및 지원자 공모
- 일정기간을 이수하는 자는 교육수료증 교부(3일 교육증 발급)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별첨 1)
- 축산업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후계자, 가족내 교육을 이수하고 자 할 경우)

2.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생산자로서의 역량에 더해 생산과 유통, 마케팅을 총 망라하는 지식인으로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 지식 배양
-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함양과 경영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생산성 증대와 나아가 우수축산물 생산에 기여

3. 교육운영시간표

교시	월일 시간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1차 : 8/31(수), 2차 : 9/5(월)	1차 : 9/1(목), 2차 : 9/6(화)	1차 : 9/2(금), 2차 : 9/7(수)
	08:00~08:50	-	아침식사	아침식사
1	09:00~09:50	-	육계농장 인증제권설텟 (HACCP, 친환경)	창조적 대화기법
2	10:00~10:50	교육과정 안내, 입교식		
3	11:00~11:50	육계사 구성과 환기	육계 정책방향 설명	교육수료증 전달식 및 퇴소식(설문조사) 점심식사
4	12:00~12:50			
	13:00~13:50	점심식사	점심식사	
5	14:00~14:50	육계사양관리	축산계열화사업법 교육	
6	15:00~15:50			
7	16:00~16:50	양계질병 진단 및 관리방안	양계경영, 세무회계 교육	
8	17:00~17:50			
	18:00~18:50	저녁식사	저녁식사	
9	19:00~19:50	자율분임토의	자율분임토의	
10	20:00~20:50			

※ 강의내용 및 일정은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

- (사)대한양계협회 경영지원부(☎ 02-588-7653)

지하철광고로 국산 닭고기 소비홍보 나선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내년 6월까지 1년간 실시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는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지하철안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할 지하철광고 대행사 선정에 대해 지난 7월 20일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공익 캠페인 형태로 제작되는 이번 지하철 광고는 서울, 경기도 전 노선에 걸쳐 지하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국산 닭고기인증제도 및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제안서 심사를 거쳐 20일 실시된 경쟁 PT에서는 (주)오픈미디어, (주)함께사는세상, (주)투모로우 커뮤니케이션

그룹 샐러드, 21세기 광고연구소 등 총 4개 업체가 참여했다. 육계자조금 지하철 광고는 대행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며 광고 기간은 2012년 6월까지로 총 1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지하철광고는 온라인광고(인터넷 홈페이지, 닭고기 소개 기사 등)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국산 닭고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입산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익 캠페인 형태로 제작되는 만큼 지하철광고를 통해 고단백·저칼로리 식품인 닭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닭고기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자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2010년 지하철 광고

‘2011 전국양계인대회’ 9월 22~23일 대구에서 개최

대한양계협회, 양계농가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의 장으로

‘2011 전국양계인대회’가 오는 9월 22일, 23일 이틀간 대구 EXCO 오디토리움에서 양계농가 및 관련업계 종사자 약 5천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대한양계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2011 전국양계인대회’는 양계산업이 처한 국내외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양계 농가가 한자리에 모여

일체감 형성과 더불어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대한양계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25일 협회와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2011 전국양계인대회’ 입찰공고를 내고 대행업체 선정에 나섰으며, 8월 초 대행사 선정이 이뤄지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

‘계약방식에 따른 사육비 **적정성 평가 연구**’ 착수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선진 해외 사례 비교평가

계약방식에 따른 사육비의 적정성평가를 위한 조사연구가 최근 연구용역 업체 선정에 따라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계획된 ‘지역브랜드 육성 방안 연구’, ‘육계농가 기초자료 D/B 구축’ 등의 조사연구 사업도 시작될 예정이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현재 육계농가와 계열업체간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계약방식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올해 자조금사업으로 ‘계약방식에 따른 사육비의 적정성 평가 연구’를 실시키로 하고 지난 7월 초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해 최근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의 계약 방식에 따른 농가의 사육비 적정성을 미국 및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평가하고, 국내 육계산업의 효율적인 계약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내 육계산업의 계약방식인 절대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정 사육비 산정을 통해 육계농가의 소득증대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고 오는 12월에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한편,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지역브랜드 육성 방안 연구’, ‘육계농가 기초자료 D/B 구축’ 등의 조사연구 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브랜드 육성 방안 연구’에서는 현 지역브랜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육계관련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연구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외의 지역브랜드 성공사례를 통해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육계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전국 육계 지역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소비기반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농가의 소득 보장을 도울 예정이다.

‘육계농가 기초자료 D/B 구축 연구’는 현재까지 미흡했던 양계관련 통계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육계농가의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육계산업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 육계산업의 농가현황, 사육수수, 경영, 유통, 생산, 위탁계약서, 제도, 가공분야 등 육계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 대구 EXCO에서 개최

9월 21~24일, 주관단체인 대한양계협회 대회준비에 만전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축산박람회로 손꼽히는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오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대구 EXCO에서 개최된다.

주관단체로 선정된 대한양계협회는 그 동안 대전에서 개최되던 행사를 대구로 옮겨 처음 개최하는 만큼 완벽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친환경축산, 미래의 녹색희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축산농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급변하는 환경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 5개 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우리의 우수한 축산기술을 국내외적으로 알려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만남을 통



해 국내 축산물의 소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서는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개막식과 폐막식을 비롯해 축산관련 기자재 및 종축 전시, 축산홍보관이 설치되고 부대행사로는 축산물 소비홍보 시식회, 학술세미나, 우수축산농가·우수전시업체 선발 등이 열릴 예정이다. 🍅

2011 **대한민국 우수축산물 페스티벌** 8월 18일 열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소비자들에게 국산 닭고기 홍보

2011 대한민국 우수축산물 페스티벌이 오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COEX에서 열린다.

‘고고고!!! 힘내라 대한민국 축산’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대한양계협회와 연계하여 홍보를 위한 부스를 설치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축산물의 우수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양계협회에서는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홍보사업을 대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 대행사입찰 건을 공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오는 11월말까지 축산물 전시행사에서 홍보사업을 대행하고 소비자들에게 닭고기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기능성 등을 홍보해 소비자의 지속적인 소비를 유도한다. 🍅



AI, 구제역 발생국 여행 축산인 신고 의무화

7월 25일부터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도 지켜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7월 25일부터 가축 전염병(구제역·AI) 발생국가에 다녀온 축산관계자와 축산 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에 대한 소독 조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강화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등 농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농림수산물부는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국민 식탁을 책임지기 위하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식품 검역·검사 및 원산지표시 강화대책 회의’를 지난 7월 25일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검역검사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과 수입산(국내산 포함)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강화, 원산지표시 위반 상습범에 대한 처벌강화,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된 주요 대책 및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경검역 강화

2011년 7월 25일부터는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물론,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도 입국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공·항만에서 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구제역 및 고

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정보를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공개하고, 해당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와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 여행자는 입국할 때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축산관계자는 해당 국가에 출국할 때에도 출국사실을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축·수산물 방사능 검사 지속, 강화

소비자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방사능 검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방사능 검사 장비를 확충하고 검사 인력도 증원하여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유통성수기와 품목별 부정유통 취약시기에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적 원산지 식별법을 개발하고 단속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와 처벌강화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며, 2012년부터는 미꾸라지와 낙지 등 6개 품목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수산물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검사로 해외 질병유입 방지와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단속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금은 3저(低) 1고(高)의 닭고기 전성시대!



민경애 원장
미담 식생활연구원

닭고기는 식용하는 육류중에서 가장 많은 민족(사람들)이 먹는 육류이다. 역사를 보면 닭은 열대지역이 원산지라 기원전 3000년전 인도에서 사육되어서 동남아시아, 중국, 지중해연안국을 거쳐 유럽에 전파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전에 남방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측되고 신라 시조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온 설화가 전해지며 가야시대 유물에서 달걀껍질이 담긴 토기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식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님이 드시던 귀한 궁중닭찜부터 잔치상, 제사상은 물론 서민들에게는 더없이 귀한 보양식으로 손색없었던 닭고기. 오죽하면 귀한 사위가 오면 씨암닭을 잡아준다는 했으랴만, 그 귀한 닭고기가 이제는 우리 식생활 중심에서 저(닭고기)만이 갖고 있는 우수함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어야 할 시대가 되었다.

흔히들 닭고기를 3저 즉, 저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과 1고, 즉 고단백식품이라고 한다. 먹을 것이 너무 많고 넘쳐나는 영양과잉으로 인하여 수많은 질병들이 만연하여 성인병으로 불리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어른의 질병들이 이제는 소아에게까지 발병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들이 아예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기인한 다하여 생활습관병으로 불리는 작금에, 특히 육류섭취에 대한 불안과 불신의 시대에 적합한 육류가 바로 흰색육류인 닭고기인 듯 싶다. 그 확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른 육류에 비해 낮은 3가지는 부족함이 아닌 커다란 장점인데 첫 번째로 지방이 적다. 뿐만 아니라 지니고 있는 지방의 조성도 다른 육류의 포화지방과 달리 불포화지방과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의 함량이 높다. 대부분의 동물성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가 되는 포화지방으로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질환과 비만의 주범이 되는데 불포화지방이 월등히 많은 닭고기의 경우 특히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넉넉하다. 지방은 먹는 것으로부터 체내에서 합성되기도 하는데 필수지방산이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되더라도 그 양이 지극히 적어 식품으로 꼭 보충되어야 하는 지방으로 성장증진, 피부와 생식기능의 정상적 발달에 관여하므로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지방이다.

또 불포화지방은 혈액내에 오히려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기도 하므로 저콜레스테롤 식품이기도 하다. 이렇게 닭고기의 지방이 다른 육류에 비해 적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지방이다 보니 더불어 칼로리도 낮아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체중조절 즉 다이어트에 매우 유용한 식품이다. 흔히 체중조절과 탄탄한 근육을 만들 때에 반드시 닭가슴살을 먹는 것이 정설화 되었는데 이는 저칼로리이면서 반면 단백질은 매우 높아 근육형성에 도움이 되며, 근육형성은 기초대사량을 높여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므로 체중조절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내의 지방은 빠지



“ 닭고기는 핏물도 잘 빠져있고 탄력이 있으며 묵직한 느낌과 촉촉함이 있는 맑은 크림색이 도는 닭고기를 선택해야한다. 때문에 닭고기는 냉동하여 장기간 유통된 것 보다는 짧은 기간내에 유통되는 신선한 국내산 닭고기가 가장 맛있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고 근육이 커지면서 체중조절과 탄탄하고 멋진 근육이 발달하게 되므로 닭고기가 다이어트식품이라는 영예를 안고 있다.

그리고 닭고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다른 육류들에 비해 근육조직이 연하고 가늘며 근육섬유(살코기)에 지방이 적어 맛이 담백하고 소화흡수가 잘된다. 닭가슴살부위의 경우 단백질함량이 가장 높고 지방이 적으므로 성장기 어린이나 병약자, 체중조절자 등에게 매우 유용하다. 부위별로 특징과 차이가 미미하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닭고기의 영양과 맛은 우수하여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음이 당연하다. 하물며 요즘은 닭발이나 닭날개까지도 인기가 있는데 이 또한 단순 맛 뿐만 아니라 성분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근거있고 당연지사가 아닐까싶다.

옛말에 ‘닭날개 먹으면 바람난다’라는 우스개 같은 속설이 있는데 이는 날개가 푸드덕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닭날개에는 다른 부위보다 콜라겐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콜라겐은 불완전 단백질의 일종으로 피부나 머리카락 등 결합조직을 구성하는데 이 콜라겐 성분이 날개부위와 닭발 등에 넉넉하므로 많이 먹으면 피부가 고와져서 예뻐진다고 해서 생겨난 야담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닭고기가 갖고 있는 영양성분은 비타민A와 B₁, B₂ 등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참 착한 고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러한 우수한 영양과 맛을 더욱 증진시키고 북돋울 수 있도록 취급시 주의할 사항도 잊지 말자. 몸에 이로운 지방인 리놀렌산은 불포화지방으로 공기 중에 노출되면 변질될 위험이 높다. 또한 연하고 지방이 적은 근육조직(살)은 냉동과정을 거치면 지방과 근육섬유질이 분해되어 요리를 하면 푸석푸석하고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소

멸된다. 그리고 우리 고전 종합 백과사전적인 ‘산림경제’에 등장하는 조상님들의 닭고기 다루는 법을 보면 ‘연계를 잡아 잡아서 거꾸로 매달았다가 피를 빼고 하룻밤 지나서 먹으면 연하고 맛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처럼 닭고기는 도계하여 8~24시간의 숙성과정이 필요하고 거꾸로 매달았던 것처럼 피멍이 없어야하며 핏물도 잘 빠져있고 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묵직한 느낌과 촉촉함이 있는 맑은 크림색이 도는 닭고기를 선택해야 한다. 때문에 닭고기는 냉동하여 장기간 유통된 것 보다는 짧은 기간내에 유통되는 신선한 국내산 닭고기가 가장 맛있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입 닭고기가 많이 가공,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올바른 선택법이라 하겠다.

요즘 비싼 물가를 반영한 음식중에 ‘삼계탕’이 있다. 삼계탕 가격이 비싸서 반마리의 닭으로 만들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삼계탕은 초복부터 말복까지 삼복중에 꼭 먹어야한다는 여름보양식으로 우리나라민 모두의 사랑을 받아온 음식이다. 하지만 찾는 시기가 편중되다보니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품귀현상이 있는데, 닭고기는 1년 365일 연중 가족과 자신을 위해 특별식이 아닌 건강일상식 요리로 만들어 몸에 해로운 지방, 칼로리, 콜레스테롤 등 3가지는 낮고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높은 우수한 국산 닭고기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대세’가 아닐까? 🍗



향후 10년간 세계육류시장 상승 가금류가 주도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1~2020 전망 보고서' 에서 밝혀

세계육류시장은 향후 10년간(2011~2020년)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승세를 주도하는 육류는 가금류일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OECD가 2011년 6월에 발간한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1~2020 보고서' 내용 중 세계 육류 수급 전망 부분을 발췌해 'OECD-FAO 2011~2020 세계 육류 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연간 세계 육류 생산 증가율은 그 이전보다 낮은 연평균 1.8%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가금류는 생산주기가 짧고 생산효율이 높아 생산량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세계 육류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해온 사료 가격에 따라 움직이며 전망기간 중 상반기에는 가격상승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가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세계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0년과 비교하여 이번 전망 기간의 축산 소비량 성장세는 육류 가격이 높고 인구증가율이 감소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요 증가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석유수출국 등 큰 경제국가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의 세계 육류 수출량은 가금류와 쇠고기 수출량의 증가로 전망기간에 연 1.7%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지난 10년동안 연간 4.4% 증가).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가축분야의 내수를 확장하고자 하는 러시아 연방의 수입 수요의 감소 영향이 크며 육류 수출의 성장은 대부분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 지역은 세계 수출량 증가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에 기록적으로 높았던 육류 가격은 향후 10년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육류가격은 가축 마리수의 감소와 높은 사료비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전망기간 중 하반기에는 높은 사료 가격뿐 아니라 엄격한 식품 안전 및 환경 규정, 동물 복지 규정, 이력 추적제 등으로 가격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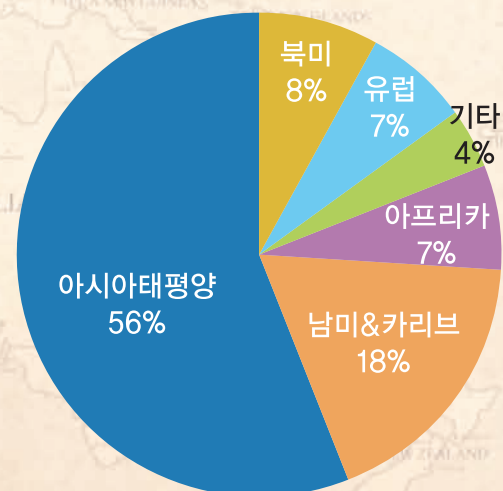
2008~2010년과 비교해 보면 2020년까지 가금류의 명목 가격(부르는 가격)은 16% 높아질 전망이다.

연간 세계 육류 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1.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육류 생산량 증가는 대부분 가금류와 돼지고기의 생산량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적색육류에 비해 생산주기가 더 짧고 생산효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시장에 영향을 주는 중동국가의 수입 수요 증가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망기간 동안 육류의 생산은 높게 유지되는 사료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사료 가격으로 인해 사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집중적인 사료 기반 생산 시스템에서 특히 가금류와 양고기, 돼지고기 산업에서 더 효율적인 사료 대 육류 전환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년에 비해 전망기간의 소비증가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육류 가격이 높은 반면 인구증가율이 낮아 육류 소비 증가율이 소폭 줄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노령화와 육류생산에 대한 의식 증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는 특히 선진국에서 육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

2020년 지역별 육류 소비 현황



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경제국의 경우 수입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식물성 식품 섭취 대신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여 육류 수요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석유수출국 등에 의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향후 10년간 국제 육류 무역 성장의 경우 감소하는 생산량과 안정된 세계 육류가격으로 인해 수입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금류와 쇠고기 수출로 인해 세계 육류 수출량은 기준기간에 비해 2020년까지 1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까지 육류 교역량 증가분 중 대부분은 모든 육류 수출 증가량의 84%를 육박하는 북·남미에서 비롯될 전망이다. 미국의 육류 수출량은 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가 적용되어 수입 관세가 낮아지고 고소득 무역 파트너들이 부과하는 BSE 연관 수입 제약이 점차적으로 완화되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EU의 경우 육류 수출량은 정책 개혁으로 국내 생산량이 감소됐고 EU확대에 의해 역내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망기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간 육류 수입 킬터는 EU에 새로운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증가하였다. 일본은 2020년까지 가장 많은 육류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멕시코와 한국이 그 다음으로 많은 육류를 수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러시아 연방도 총 육류 수입국 중 수입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지만 TRQ(저율관세할당물량)와 중국의 자급 정책으로 인해 육류 수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육류의 무역량은 지난 10년간 평균 4.7%에서 향후 평균 2%의 증가율 감소를 보일 것으로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과 브라질의 경우 육류 수출량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국가들은 세계 무역에서 우세한 위치를 굳힐 것으로 예상됐다. 전망기간 상반기에 이들의 수출량은 가금류 제품 가격이 높고 사료 가격도 비싸 공급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 정체가 예상됐다. 그러나 높은 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을 고려하여 생산자가 생산량과 수출량을 전망기간 하반기 중에 늘린다면 산업 내 구조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까지 미국과 브라질 수출량은 세계 시장의 추가 수출 공급량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아르헨티나의 남아메리카 시장으로의 수출량은 충분한 사료투입과 폐소화(貨)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태국의 수출량도 가공생산물을 주로 하여 약간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EU 수출량은 증가하는 국내 수요, 유로화의 강세, 사육 밀도를 제한하는 동물 복지 규정 등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 증가율은 중동,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지의 국가가 이끌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식품가공산업 확장은 수입 수요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며, 한때 세계 최대 수입국가였던 러시아의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EU에서는 전망기간 동안의 수출량 감소가 많지 않으나 지속적인 수입량 증가가 동시에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수출만 주도했던 EU는 무역 수지의 균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가금류 제품의 수출과 수입지역으로서 세계 시장에서 주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개인 육계자조금 납입 현황

(단위 : 원)

이름	농장명	금 액	주 소
이종수		150,000	
이종수		150,000	
정영호	금산농장	210,000	경북 구미시 해평면
임금택	임금택농장	126,000	충북 괴산군 장연면
김영섭	조산농장	200,000	전북 김제시 만경읍
변준석	찬송농장	150,000	전북 남원시 보절면
김한영	호수농장	256,14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주석기	명인농장	141,000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이름	농장명	금 액	주 소
이상길	한마음농장	120,000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남윤천	준식농장	350,000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정진용	정진용농장	109,500	경북 구미시 선산읍
최영규	메바위농장	117,000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변종석		96,513	
이순준	노티농장	90,000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이영하	시온농장	165,000	충남 논산시 광석면

계열사 육계자조금 납입 현황

(단위 : 원)

도계장	이름	금 액	주 소
마니커 3월	구본선	101,850	경기 양평군 옥천면
	김상진	143,460	경기 양평군 지평면
	김용현	165,945	충북 괴산군 청천면
	김정국	138,930	경기 연천군 왕징면
	김종래	61,800	강원 홍천군 남면
	동세진	165,480	경기 안성시 보개면
	마상완	47,430	경기 양평군 양평읍
	문정필	195,330	경기 양평군 개군면
	박헌경	113,850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금호	46,650	경기 양평군 개군면
	신정호	133,305	충북 보은군 수한면
	안중규	61,125	경기 양평군 지평면
	이갑표	137,130	경기 양평군 지평면
	이계표	147,360	경기 양평군 지평면
	이상철	95,025	경기 양평군 개군면
	장덕기	87,690	경기 연천군 연천읍
	정재원	174,180	경북 문경시 호계면
마니커 2월	정진채	77,220	충북 괴산군 소수면
	최윤식	62,250	경기 양평군 용문면
	김대복	131,730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김동호	78,18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김순태	146,880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김인오	48,000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김주민	103,860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김한영	251,73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박규덕	182,880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안중규	51,300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오인희	60,900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이문자	257,910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이상철	24,825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이종희	140,310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종석	94,23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임달주	158,19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정춘기	19,830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채선희	244,170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구본선	144,420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김명호	149,400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김순태	133,320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김용현	194,880	충북 괴산군 청천면
	김인오	135,960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김정국	137,220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김종래	144,900	강원도 홍천군 남면

도계장	이름	금 액	주 소
마니커 2월	김주민	109,620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동세진	166,260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마상완	124,725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문정필	249,300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박헌경	144,66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금호	127,380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신영축산	126,540	인천 강화군 화도면
	신정호	185,550	충북 보은군 수한면
	이갑표	135,150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이계표	147,720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이동섭	37,800	충남 연기군 전동면
	이상철	117,255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이신희	74,250	경북 김천시 대항면
	임달주	157,68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장덕기	90,33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정재원	167,040	경북 문경시 호계면
	정재현	54,000	경북 상주시 외남면
	최윤식	71,000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농협 목우촌 5월			
	박제면	125,640	충북 음성군 삼성면
	오정길	189,054	경북 영천시 매산동
	유승목	95,052	충북 음성군 소이면
	오정길	180,996	경북 영천시 매산동
	한종명	123,67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최영규	63,840	충북 괴산군 괴산읍
	오정길	173,781	경북 영천시 매산동
	김의선	97,623	충북 음성군 음성읍
	조병기	76,974	충북 괴산군 문광면
	영천	96,825	경북 영천시 문외동
	여두선	14,484	경기도 평택시 고동면
	황봉서	36,081	충남 연기군 소정면
	유용식	22,176	충남 서산시 인지면
	신효정	149,313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이병규	88,095	충북 괴산군 증평읍
	양평	177,126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
	대구	81,420	대구시 달서구 대천
	오해진	40,752	충북 청원군 가덕면
	고양	31,032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이영국	50,511	강원도 인제군 남면
	김남식	50,511	강원도 인제군 남면
	정하경	50,511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김성노	43,461	전북 군산시 미룡동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 호평

한국판 블록버스터, 꿈을 향한 도전과 용기 다뤄



헐리웃 영화를 능가할 한국판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이 우리 곁을 찾아왔다. 시나리오 작업 3년, 총 제작기간 6년이 소요되고 제작비에만 30억이 넘게 투입된 ‘마당을 나온 암탉’. 과연 척박한 국내 애니메이션 환경에서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베스트셀러 동화를 원작으로 한 ‘마당을 나온 암탉’

‘마당을 나온 암탉’은 어른도 읽는 동화로 잘 알려진 황선미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내용자체가 아이들 뿐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로 구성돼 있다. 이번 영화의 내용은 양계장을 탈출한 암탉 ‘일썹’이 우연히 청둥오리 ‘초록이’를 키우면서 겪는 모험담과 꿈을 향한 도전, 용기, 모성에 등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 재미와 감동, 반전까지 더해지며 끝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내용들로 영화가 전개된다.

국내 유명배우들이 직접 내레이션 참여

이번 영화는 국내 유명 배우들이 직접 내레이션에 참여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연기와 배우 최민식을 비롯해 코믹 연기의 대가 박철민, ‘리틀 소지섭’ 유승호와 최근 물오른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문소리까지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목소리에 참여해 영화의 재미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그동안 국내 애니메이션에서 부족했던 캐릭터 연기를 보완하기 위해 배우들의 목소리를 먼저 녹음한 후 그에 맞춰 그림을 그리고 다시 본녹음을 하는 방식을 택해 캐릭터들의 생동감과 디테일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OST에 ‘국민 여동생’ 아이유 참여

‘마당을 나온 암탉’의 주제가곡은 최근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고 있는 ‘아이유’가 참여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화의 주제가곡과 상큼 발랄한 아이유의 이미지가 찰떡궁합이라는 후문. 영화의 마지막에 삽입된 아이유가 부른 주제는 영화의 감동을 더욱 배가 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을 비롯해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류열풍을 몰고 있는 국내 배우들과 가수들이 참여한 만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런 예상이 드는 작품이다. 🍌

국내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의 스케일!

지난 7월 28일 개봉한 ‘마당을 나온 암탉’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최고의 스케일을 자랑한다. 영화 ‘접속’과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각각 집필한 김은정, 나현 작가가 시나리오 작업에만 3년간 매달리고 ‘공동경비구역’, ‘시라노 연애조작단’ 등을 제작한 명필름에서 순제작비 30억원을 투입해 6년여간의 제작기간을 거친 이 영화는 헐리웃 애니메이션 영화에 식상해진 관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계자조금

비매품 / 제3권 제8호 통권22호 / 등록번호 서초 라00269 / 발행 2011년 8월 15일 / 발행인겸 편집인 이준동 / 발행처 (사)대한양계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5층, Tel : (02)588-7651, Fax : (02)588-7655 / 인쇄처 삼원정판사 / 편집 인포아트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Tel : (02)585-9974 Fax : (02)585-3548

국산닭고기인증제 실시



국산닭고기인증 브랜드

- 처갓집양념통닭
- 아주커치킨
- 호식이두마리치킨
- 굽네치킨
- 구어좋은닭
- 들판
- 사바사바치킨
- 두리아
- 오븐에 빠진 닭
- 꾸루꾸루
- 에코윌
- 본스치킨
- 에디슨치킨
- 체리부로



대한양계협회

국산닭고기인증제는 육계자조금 사업으로 (사)대한양계협회가 사업을 운영하며,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 농식품부 · 소비자시민모임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의 가치와 공정성이 높습니다.

국산닭고기인증제는 닭고기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안정적인 소비 촉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가 국산 닭고기를 취급하는 닭고기 외식업체 및 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한양계협회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